

-(으)ㄴ/는 형국이다

상황이 이런 모양새가 되었다

관찰자의 눈에 보이는 사태의 형세를 묘사합니다. 형국은 어떤 상황이 띠게 된 모양을 뜻하며, 분석과 논평에서 쓰는 단어입니다.

■ 결합 방법

품사	형태	예
동사	-는 형국이다	밀리다 → 밀리는 형국이다
형용사	-(으)ㄴ 형국이다	팽팽하다 → 팽팽한 형국이다
ㄹ로 끝남	ㄹ 탈락	만들다 → 만드는 형국이다
격식	논평, 분석	정치, 시장
띄어쓰기	형국은 명사	밀리는 형국이다
부족함을 보고할 때	-(으)ㄴ/는 실정이다	예산이 부족한 실정이다

■ 언제 쓰나요

이 형태는 관형형 체계를 따릅니다: 동사는 -는 형국이다, 형용사는 -(으)ㄴ 형국이다. ㄹ 어간은 ㄹ이 탈락하며, 형국은 명사이므로 띄어 씁니다.

말하는 사람은 한발 물러서서 어떤 양상을 묘사하고 있습니다.: 여당이 수세에 물리는 형국이다. 정치나 시장 논평에서 쓰는 말입니다.

형국은 모양을 뜻하므로 앞 절은 흔히 비유적으로 읽힙니다. 마치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 사태가 짜여 있다는 뜻입니다.

부족한 현실을 보고하는 -(으)ㄴ/는 실정이다와 달리, 형국이라는 중립적입니다. 형세를 말할 뿐 불평하지 않습니다.

■ 예문

- 1 여당이 수세에 물리는 형국입니다.
- 2 양측이 팽팽하게 맞서는 형국이다.
- 3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형국이였다.
- 4 시장이 한쪽으로 쏠리는 형국을 보이고 있다.
- 5 부품까지 직접 만드는 형국이라 비용 구조가 독특하다.
- 6 서로 눈치만 보는 형국이 이어지고 있다.

■ 비교

-(으)ㄴ/는 실정이다
꼭 구별해야 할 짝입니다. 실정이라는 부족한 현실을 보고하며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암시하고, 형국이라는 형세를 중립적으로 묘사합니다.
예산이 부족한 실정이다. (자금이 부족함) / 밀리는 형국이다. (형세가 그러함)

-(으)ㄴ/는 격이다
격이라는 비유를 통해 대개 비판적인 판단을 내리고, 형국이라는 판단 없이 형세를 묘사합니다.
계란으로 바위 치는 격이다. (헛수고) / 맞서는 형국이다. (팽팽히 맞선 상태)

-는 중이다
중이라는 동작이 진행 중임을 말하고, 형국이라는 전체 상황이 어떤 모양새를 띠게 되었음을 말합니다.
협상하는 중이다. (협상 진행 중) / 맞서는 형국이다. (교착 상태)

■ 주의

- ✗ 부품까지 직접 만들는 형국이다.
- 부품까지 직접 만드는 형국이다.
ㄹ 어간은 관형형 체계 전반에서와 마찬가지로 -는 앞에서 ㄹ이 탈락합니다.
- ✗ 저는 요즘 바쁜 형국입니다.
- 저는 요즘 바쁩니다.
형국은 밖에서 관찰한 형세를 묘사합니다. 자신의 하루에 쓰면 어색하게 들립니다.
- ✗ 여당이 수세에 물리는 형국입니다.
- 여당이 수세에 물리는 형국입니다.
형국은 명사이므로 관형형 뒤에 띄어 씁니다.